

탈항을 예방하자.

장 성 현
(오성농장기사)

본래의 탈항이라고 함은 닭이 과비, 복부지방의 과다 침착 등의 원인으로 수란관 및 직장의 이완작용이 방해가 되어 직장부위가 항문밖으로 밀려나와 항문이 뒤집혀지는 현상을 말하나, 요즈음, 양계장에서 심하게 문제가 되어 수익성에 피해를 주고 있는 탈항의 대부분은 수란관이나 항문 부위에 상처로 인해서 닭이 알을 낳을 때 직장, 수란관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 즉 닭이 서로 항문부위를 쪼아서 그로인해서 탈항이 야기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양관리면에서 어느정도 예방할 수있으니 만큼, 다음과 같은 사양관리사항에 착안하여 탈항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1. 닭의 성질을 온순하게 육성시킬 것

어떤 양계가들은 닭의 품종에서 성질의 온순함을 찾으려고 하나, 이는 큰 어리석음이다 물론, 선천적으로 품종이 가지는 성질이 있겠으나, 이보다는 양계장에서 육성과정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성계의 성질이 조성되는 만큼 육성기간의 관리의 잘, 잘못에 따라서 닭의 성질이 좌우된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육성기에 온순하게 사육하게 되면, 산란기에도 온순한 성질은 가지게되나, 만일 잘못 육성해서 성질이 날카롭게 육성이 되면 닭은 투쟁심이 생겨서 쪼는 버릇을 익히게 되어 옆의 닭이 알을 놓으려고 할시에 항문부위를 쪼아 결과적으로 탈항을 유발하게 되어 그 닭은 죽게된다. 그러므로 육성기에 닭을 온순하게 육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탈항예방방법이라고 보겠다.

닭을 온순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 가급적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육성실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 굵이 및 급수기 면적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밀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에 유의하도록 한다.

○ 질병예방을 잘 하도록한다.

○ 내 외부 환경여건을 좋도록 해준다.

(계사 주위가 시끄러워서 닭이 자주 놀라게되는 환경에서는 닭에 불안감을 주게 되어 온순한 성질조성에 지장이 오며, 하절에 계사내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닭은 쪼는 버릇이 생기게 되니, 계사 내 외부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최선의 관리가 필요하다)

○ 내외부 기생충 구제 실시

2. 올바른 점등법 실시

육성기간에는 절대 점등시간을 늘려주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가을 병아리는 육성기간에 자연일조시간 점점 많아지는 여건에서 육성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육성기 점등효과는 닭의 성성숙을 촉진시켜 초산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와서 초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체성숙이 충분히 표준에 도달한 후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체성숙이 미달된 상태에서 산란을 하게되면 탈항이 유발되는 예가 흔한 것이다. 또한 유의할 사항은 정상적인 관리상황에서 초산을 하였더라도 점등시간을 급작스럽게 늘려주게 되면 쌍알생산이 많

아직 탈항이 많이 될지도 모르니 유의토록한다. 산란기엔 점등의 광도에도 유의하여 닭에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주도 한다.

3. 과비시키지 않도록한다.

육성기간 중, 특히 대추기 사육에서 과비시키게 되면 탈항이 유발되니, 각품종별 부화장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한급이방식을 채택하여 육성비도 절감시키고 초산일령도 다소 지연시켜서 탈항예방, 초산난중 증가, 산란증가속도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 관리사항으로 생각된다. 제한급이를 할려면 꼭 부화장 및 사료공장의 전문기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4. 육성기에 디비킹을 실시한다.

최근 디비킹은 양계에서 빼놓을 수없는 중요한 사양관리항목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편이나 다행한 일이다. 육성기에 1~2회 디비킹을 실시함으로써 일찍부터 쪼는 버릇을 배우지 못하게 함은 물론 대개의 탈항이 쪼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디비킹된 닭은 쪼아도 큰 피해는 없으므로 꼭 디비킹을 실시해서 탈항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도록 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디비킹을 잘못하면 사료허실, 산란율 저조, 등 생각외의 손해를 초래할지도 모르니, 전문기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디비킹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겠다. 다시 강조하건대, 모든 산란란계는 100일령 이전에 정확한 디비킹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영양관리

닭의 영양, 즉 배합사료의 영양의 불균형도 닭에 쪼는 버릇을 가르쳐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쯤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양지

가축약품

부화장

- ◇ 오기품종 엄선분양
- ◇ 경영·사양관리상담
- ◇ 동물약품 염가 도산매

네오크로 } 고농도분말
판옥시

네오크로 } 산란강화제
판옥시

서울·성동구 천호동 413
전화 : 56-1938, 55-2208